

시방세계

十方世界

중국서 사라진 영산재
1200년만에 현지 재현

현장속으로

중국에서 바라춤 덩실 덩실~



11월 17일 중국 허북성 조현 백림선사에서 봉행된 '사천성 지진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대제'에는 3000여 중국불자들이 동참해 기림박수의 성원을 보냈다.

태고종 및 중국불교협회 대표단.

조주선사탑에 예배하는 태고종 스님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최선”



“영산재 중국 공연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태고종이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종단 위상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영산재 중국 시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은 “이번 공연에 중진 어산 스님들이 모두 참가할 수 없어서 육전범음대 및 동방불교대 학생들이 동참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를 계기로 영산재를 전수하는 교수진 및 커리큘럼 단일화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영산재 상설공연장과 육전범음대 건립을 포함한 봉원사 성역 화사업을 본격화해 영산재를 대내외에 선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역할을 정리하는 시점(내년 3월 퇴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돕겠다는 단체가 있는 만큼 다음 총무원 집행부가 이를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북경=김성우 기자

한국으로 전수된 후 중국에서 사라진 영산재가 1200여 년 만에 본토에서 재현됐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은 11월 15일 중국 북경시 서산에 위치한 불지(佛池)사리 성지 영광사에서, 17일 허북성 조현 백림선사에서 '사천성 지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중국 종교국과 중국불교협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영산재는 한중 불교문화교류 및 우호증진과 지진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원법회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중국의 불교교향악인 '신주화악(神州和樂)' 한국 공연에 대한 화답형식을 띤 이번 영산재 시연은 신라 진감(眞鑑, 774~850) 국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와 하동 쌍계사(옛 옥전사)에서 범패를 가르친 이후, 1200년 만에 중국 본토에서 재현됐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 불교음악을 결합한 '신주화악'을 만든 중국에서는 영산재를 복원해 단절된 불교문화예술의 맥을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원호 스님 이래 중국에 불교문화를 역수출하는 쾌거가 될 전망이다.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영광사 영광강당에서 첫 시연회를 가진 영산재는 역사적인 의미만큼이나 높은 관심속에서 중국 불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한국 대표단 130여 명과 중국불교협회장 일성(一誠) 스님, 영광사 방장 상장(常藏) 스님, 광제사 방장 연각(演覺) 스님 등 10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양국 고승을 모시는 중사 이운으로 시작했다.

한중 양국의 불교의식에 이어 △천수바라 △요잡 바라(성종의 강림을 환영하는 바라춤) △도량계 △사다라니바라(공양음악의 질과 양을 변화하는 진언을 봉독하는 의식) △다계 △향화계 △법고춤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영산재는 1시간 30분으로 축약돼 공연됐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도량인 영산회상의 제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영산제(靈山齋)의 전 과정을 재현하는 데는 120명이 3일 동안 피박 진행해야 하는 대규모 공연이기 때문이다.

영산재에 앞서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신주화악’ 한국 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오늘,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공연을 보게 된 것은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영광사에서 영산재를 모시는 것은 인연법의 소산”이라며 “지난 5월 사천성 지진 희생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정성껏 기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중국 종교국 관계자들과 중국불교협회 스님들은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정도로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영산재에 대한 중국 불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17일 백림선사 공연에서 더욱 고조됐다. 인구 6000만여 명을 자랑하는 허북성의 손사빈(孫士彬) 부성장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해(淨慧) 스님, 백림선사 방장 명해(明海) 스님 등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림박수를 받았다.

종교국과 허북성 등이 연일 공식만찬을 베풀며 행사를 지원하고 격찬한 두 차례의 공연을 지켜본 중국불교협회 사무국장 보정(普正) 스님은 “오늘 공연을 보고 범음과 춤사위 하나하나가 법문이 돼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연을 지휘한 육전범음대학장 일운 스님(영산재 준기능보유자)은 “중국의 국가행사로 치러진 이번 영산재 공연은 우리 전통불교문화의 높은 예술성을 보여준 쾌거”라고 자평했다.

이번 공연의 성공으로 태고종은 문화관광부 지원아래 추진중인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백림선사=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시 • 성지 순례 산행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대자연 GREAT NATURE UNITED www.amata.co.kr

아마따茶로 성불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 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란? 미안파팔리로 '길로' (부처 앞에 올리는 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 無설탕
- 無색소
-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원: 유기미(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